

건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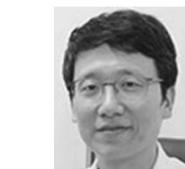
뇌혈관 질환의 비침습성 기술

뇌관 질환이란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혈관의 협착이나 막힘, 혈관의 약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열되었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동맥류, 그리고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동정맥기형 등을 포함하는 위중한 질환이다.

▲비침습적 기술이란

'비침습적 기술'은 '중재적 기술' 혹은 '인터벤션'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인 머리를 열고 병변부위를 직접 다루는 개두술과 달리 혈관 속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 X선 투시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병적인 혈관부위를 특수한 물질 혹은 기구로 막거나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힌 부위를 약물이나 풍선 혹은 스텐트 등으로 개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재적 기술에 이용되는 X선 투시법은 CT나 MRI 보다도 훨씬 오래 전에 개발되었고 뇌혈관 질환 외에도 복부 장기나 다른 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널리 이용돼 왔다. 따라서 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기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뇌혈관조영술과 투시영상을 얻을 수



권 배 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해 삼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구비돼야 한다.

▲중재적 기술

중재적 기술을 하는 의사는 초기에 방사선과 전문의만으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신경외과, 신경과 등의 전문의들도 중재적 기술을 하며 전문적인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신경계 전문 의라면 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기술을 할 수 있다.

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기술은 주로 대퇴부 동맥 혹은 정맥을 통하여 뇌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먼저 '유도 카테터'를 대퇴부혈관으로부터 목 부위의 뇌혈관까지 넣어 둔

다. '유도 카테터' 속으로 '미세 카테터'를 포함한 각종 기구를 넣어 기술을 한다. 병적인 혈관부위를 막는 물질은 액체, 금속, 입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물질은 주로 동정맥기형을 막는데 이용되고 아교, 오닉스, 에탄올 등이 대표적이다. 금속물질은 코일 형태로서 주로 동맥류 기술에 사용되고 주성분은 백금이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코일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특히 동맥류 기술에 쓰이는 코일은 밀고 당길 수 있게 만들어져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코일을 동맥류 속에 떨어뜨리고 나온다. 이를 '코일분리'라고 하며 전기적으로, 수압으로, 혹은 전기발열 등의 기전으로 분리한다. 입자물질은 중앙혈관을

막는데 주로 이용되며 Polyvinyl alcohol (PVA)이 대표적이다.

▲혈관 개통 기구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개통시키는 대표적 기구는 풍선카테터와 스텐트이다. 풍선을 부풀려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합금으로 만든 그물망 형태의 스텐트라는 기구를 넣어 좁아진 혈관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심장이나 심장에 가까운 동맥으로부터 혈전이 떨어져 나가 멀리 있는 뇌혈관을 막으면 막힌 위치와 측부 혈행의 정도에 따라 뇌졸중의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이용해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재개통 시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재적 기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발전하여 이제 개두술과 함께 뇌혈관질환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예후가 좋지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개두술, 중재적 기술, 방사선 치료 등에 관한 여러 전문가가 모여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기고문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거래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은행 업무를 보는 방식이 편리해지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금융 사기들이 속속 생겨나 시민들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범죄의 근간에는 바로 대표통장이 있다.

어떤 형태의 금융사기든 범인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돈을 계좌를 입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통장은 범죄의 필수요소이다.

대표통장이란, 통장 개설 명목자와 실제 통장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보이거나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은 금전이 필요하거나 범죄자들에게 속아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유

통장 양도 행위는 '범죄'

혹에 빠지기 쉽다.

지난 7월 말, A씨는 보이스포싱 조직으로부터 '대출 요건이 완화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포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대표통장 건수는 2017년 1분기에만 1만 1,017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금융권들이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 대표통장 모집책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 구직사이트, SNS 등을 통한 통장



김 두 원

장수경찰서 수사지원팀

매매·대여를 유도하거나 노숙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속이고 통장을 만들게 하고,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미끼로 월급통장을 만들어 오도록 하여 가모채는 등 사세 약속 및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과 농도 전북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WTO) 개발 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것일 테지만 뜻밖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전북도에겐 할 말이 있다. 농도 전북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책을 내놓아야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 영향을 미친 게 틀림없다. 지난 7월에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에게 개도국 포기를 요구하고 나선 까닭이다. 그래 농민들의 눈에는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전북도는 농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겠다. 전북도가 삼라농정의 효과를 여러 번 말했지만 만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농가 소득이 올랐지만 농민들의 경기 체감은 예전 그대로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 삼라농정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다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농촌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다. 그런데 실상가상으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했

으니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갑툭튀' 같은 뜻밖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외쳐도 농가의 수익을 줄어든다면 말짱 헛것이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농도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전북도가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를 저번에 개최한 것은 그러한 의지의 발현이었을 터이다. 도지사가 연구 인프라 사업 발굴 등에 집중투자하겠다고도 했는데 그 또한 그러한 의지의 발현이었을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개도국 포기와 관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였다. 그런데 오래도록 그 이름값을 못했다. 한국 농업의 선두 주자의 자리를 확실히 해두자는 당부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할 말을 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음과 동시에 소비가 활발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도는 농민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결국 요지는 분명하다. 농업 예산을 보다 확대해야겠다는 이 야기다.

벤처기업들의 현황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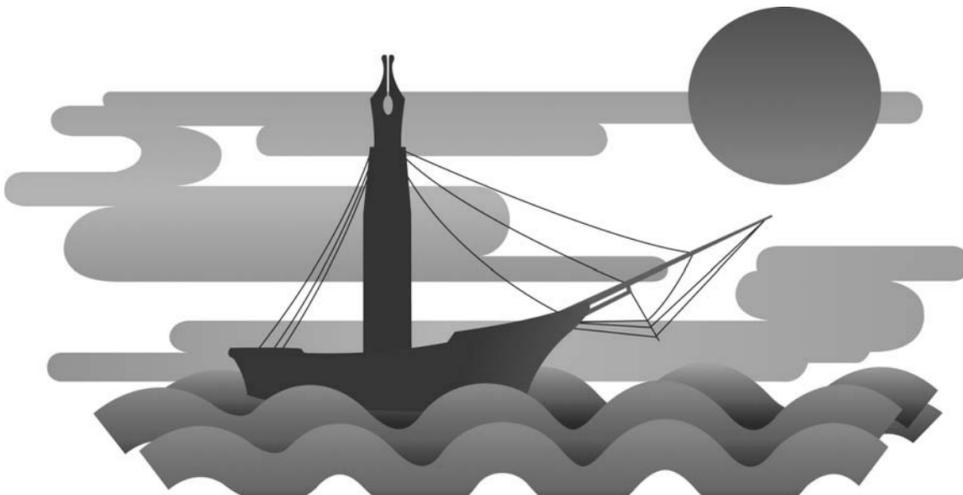
벤처기업들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지역 경제가 가파르거나 어려운데 벤처기업들 쪽에서 힘들다고 호소할 때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알량한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여기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도내 기업 생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또한 어떤지 궁금하다. 도내 벤처기업들이 끈전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말이다.

전북도에겐 다시 묻거나 벤처기업들의 현황이 궁금하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실제 상황을 팩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도와서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바탕에서이다. 전북도는 다른 현안들을 챙기는 가운데 벤처 기업들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벤처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이라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벤처기업들도 잘 나가야 지역 경제가 숨을 돌릴 수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열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벤처기업들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들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해진 상태이다. 벤처 투자 시장 규모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데도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전북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전국의 1%에 불과하다니 말이다.

정말이지 전국 대비 1% 수준은 너무 한다. 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도내 벤처기업들을 편들어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도내의 여러 벤처기업들이 애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전북도는 도내 벤처기업들의 생존률이 저조한 것에 생각이 많아졌으면 한다.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 고민하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들을 고무시킬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